2025년 1월 9일

산업분석

건설 지표 (2025.1)

▶Analyst 송유림
3772-7152
yurim.song@hanwha.com

▶RA 이다연
3772-7690
dayeon.lee@hanwha.com

목 차

0. 4Q24 Preview: 바닥 확인 02
1. 국내 건설지표 03
2. 해외 건설지표 10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13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15

건설 (Positive)

1월: 바닥 확인

국내: 주택시장 둔화 지속

2024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한 22.0조 원을 기록하며, 누계 기준 6.5%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 9월 이후 공공부문 주거용 건축의 수주 증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11월에는 6.4조 원으로 전년동기 0.7조 원 대비 9배 넘게 늘어나며 전체 수주 성장을 이끌었다. 11월 누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모습이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월에 각각 YoY -12.0%, -0.6%를 기록했다.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7.9%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물량 증가가 더 컸으며,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의 비중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11월 미분양은 다섯 달 연속 감소하며 65146세대를 기록했다. 지방은 7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66월 말 5.9만 세대에서 11월 말 5.1만 세대로 줄었다. 한편, 11월 준공 후 미분양은 18644세대로 전월대비 337세대 늘어남에 따라 16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해외: 수주 이연

2024년 11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38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10월 누계 +17%)했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액은 11월 누계 기준 3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를 기록 중이다. 4분기 중에는 삼성 E&A의 말레이시아 SAF(약 10억 달러), 카타르 에틸렌 저장시설(0.3조 원)과 현대건설의 사우디 HVDC 송전공사(1조 원) 수주 소식이 있었다. 대우건설의 리비아 하수처리(0.9조 원),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1.8조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낙찰자 선정, 금액 미정), DL이앤씨의 중앙아시아 화공(1.7조 원) 등 기존 수주 파이프라인은 2025년으로 이연됐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대출 규제 지속, 경기 둔화 우려, 정책 부재 등으로 매매가 하락, 거래량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감안 시 중장기 관점에서의 주택시장 회복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부정적/긍정적 변수의 혼재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주택 매매시장의 급격한 위축만 아니라면 2025년은 주택사업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실적 개선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주택주로의 관심 지속을 추천한다.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새롭게 제시하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0. 4Q24 Preview: 바닥 확인

4분기 실적 바닥 확인

당사 커버리지 6개 건설사(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삼성E&A, DL이앤씨, 대우건설)의 4분기 영업이익은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가 상승 및 업황 부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건설사 경영진 교체와 주로 4분기에 집중됐던 비용 반영 등을 감안하면 이번 4분기 실적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올해부터 증익 구간 진입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주택 마진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익의 방향성이 3년 만에 바뀌는 변곡점에 서있는 만큼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은 주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건설사 실적이 갑작스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주택 분양시장 침체로 공급(Q) 회복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른데 반해 원가 상승 및 미분양 여파는 계속해서 실적 상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 이상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가 종목 선택에 있어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업황 부진 속 회사 차별화 기대

2025년은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6년 동안 도시정비 수주 1위를 기록하며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확보했고, 올해를 시작으로 다수의 투자개발사업 착수를 예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불가리아 원전(하반기, 60억 달러) 등 독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아이파크(2.8조 원) 착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자체/투자개발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어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이 돋보일 전망이다.

[표1] 주요 건설사 2024년 4분기 실적 특이사항 (단위: 십억 원)

회사명	시장 컨센서스		당사 추정치	4분기 실적 추정 특이사항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컨센(OP)대비	
현대건설	8,298 *(-3.5%)*	119.9 *(-17.0%)*	하회	- 해외 일부 현장 추가 원가 반영 지속 - 현대엔지니어링 비용 반영 가능성
HDC 현대산업개발	1,207 *(+5.0%)*	69.7 *(-10.0%)*	하회	- 더딘 자체 매출 등으로 매출액 컨센서스 하회 - 지식산업센터 준공정산비용 지속
GS건설	3,292 *(-0.9%)*	92.6 *(흑전)*	하회	- 매출액 컨센서스 부합 - 해외 인프라 등 도급액 협상 지연
삼성E&A	2,490 *(-11.9%)*	186.6 *(-30.8%)*	부합	- 화공/비화공 매출 YoY 감소 - '23년 4분기 정산이익 반영(화공 GPM 16.8%)
DL이앤씨	2,215 *(-5.1%)*	99.4 *(+12.6%)*	부합	- 전부문 매출 QoQ 성장 - 주택 마진 QoQ 개선
대우건설	2,539 *(-8.6%)*	87.4 *(+12.2%)*	하회	- 베트남 THT 특이사항 부재 - 전 부문 마진 보수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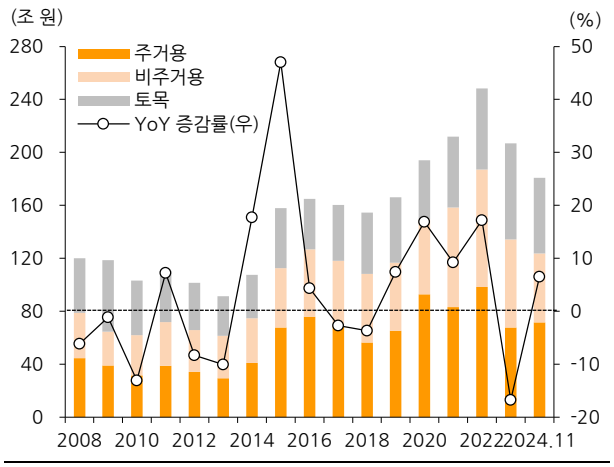
주: 2025년 1월 8일 컨센서스 기준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건설지표

(1) 선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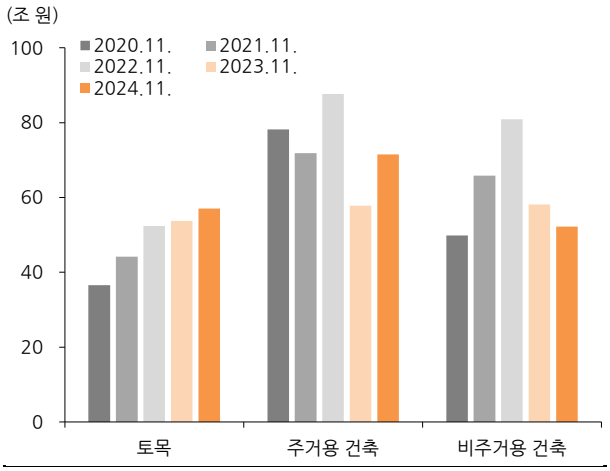
2024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한 22.0조 원을 기록하며, 누계 기준 6.5%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 9월 이후 공공부문 주거용 건축의 수주 증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11월에는 6.4조 원으로 전년동기 0.7조 원 대비 9배 넘게 늘어나며 전체 수주 성장을 이끌었다. 11월 누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모습이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월에 각각 YoY -12.0%(주거 +6.6%, 비주거 -21.0%), -0.6%를 기록했다.

[그림1] 국내 건설 수주액: '24 년 11 월 누계 YoY +6.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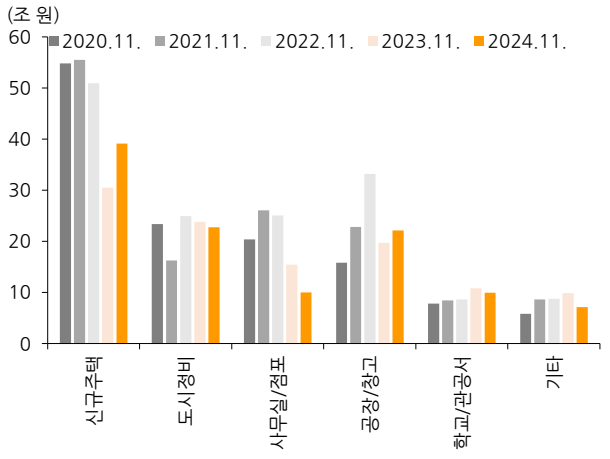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 건설수주 부문별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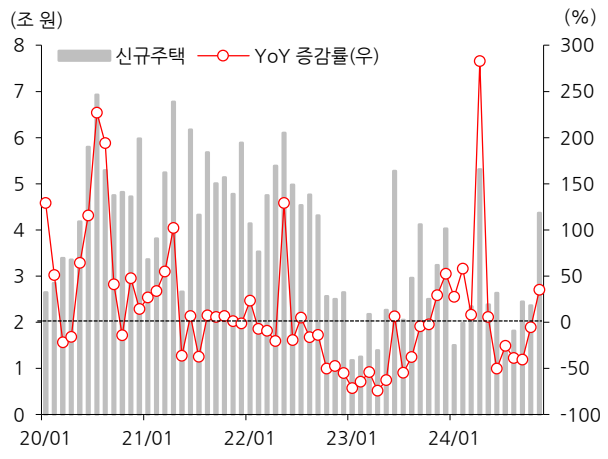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건축부문 세부공종별 수주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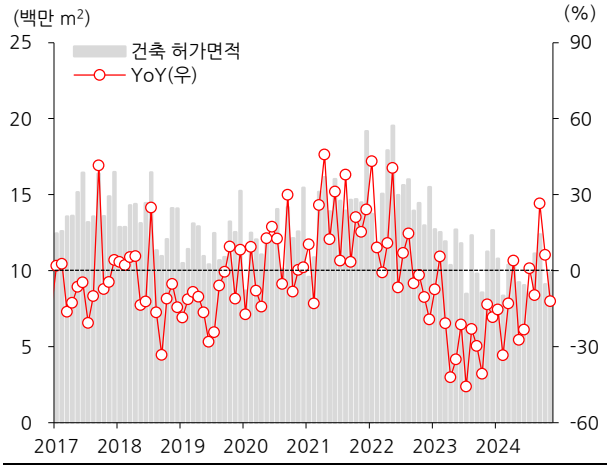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민간 신규주택 수주 월별 추이: '24 년 11 월 YoY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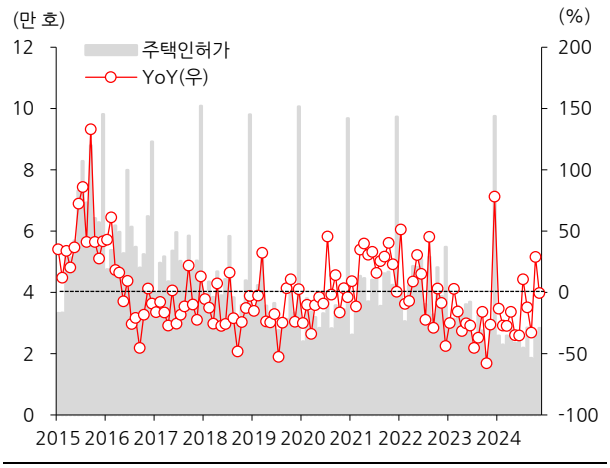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건축 허가면적: 11 월 누계 YoY -10.4%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택 인허가: 11 월 누계 YoY -17.6%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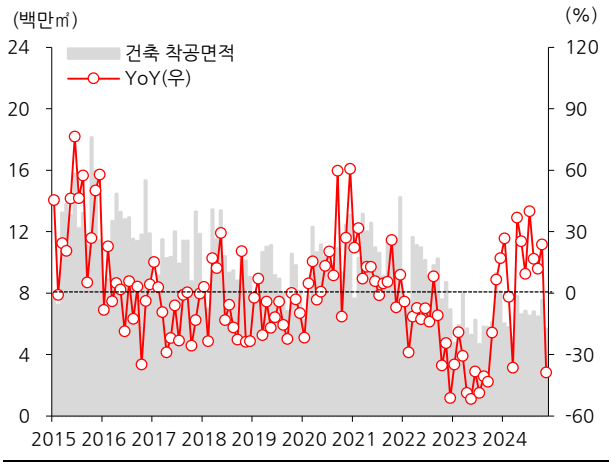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동행지표

11월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38.8% 감소했다. 주거용 착공면적은 YoY -59.6%를,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22.1%를 기록했다. 11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주거용 착공면적이 YoY +10.7%로 작년 기저를 바탕으로 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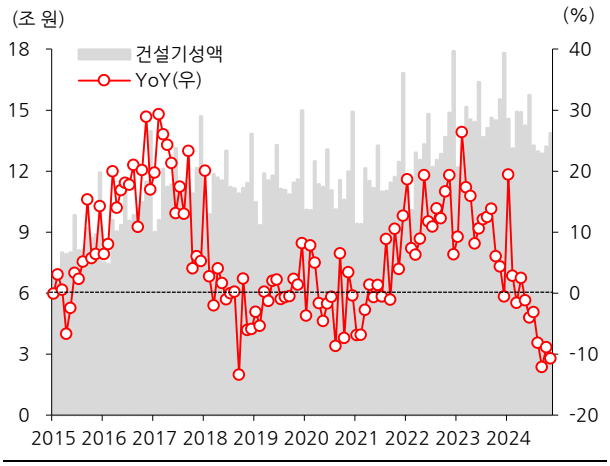
건설 기성액은 3월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그 폭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1분기에는 YoY +6.2%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1.0% 감소로 전환됐고, 3분기에는 -7.8%를 기록했다. 10월과 11월에는 각각 8.9%, 10.7% 감소했다. 건축 착공면적이 2022~23년 각각 18%, 32%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건설 기성액은 당분간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7] 건축 착공면적: '24 년 11 월 누계 YoY +5.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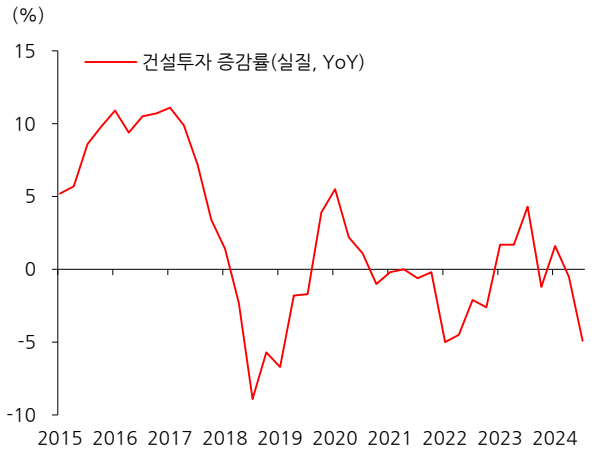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건설 기성액: '24 년 11 월 누계 YoY -2.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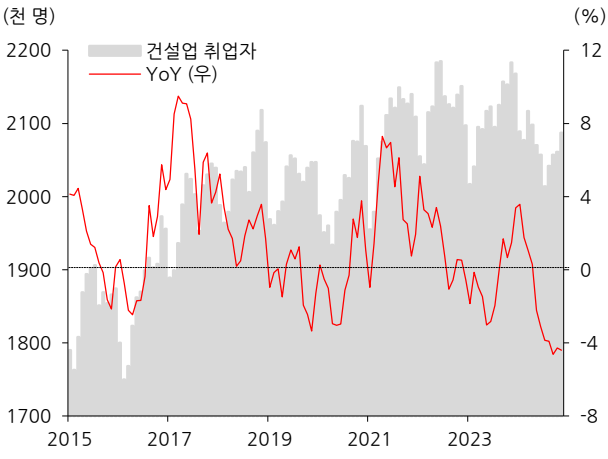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건설 투자 증감률: '24 년 3 분기 YoY -4.9%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건설업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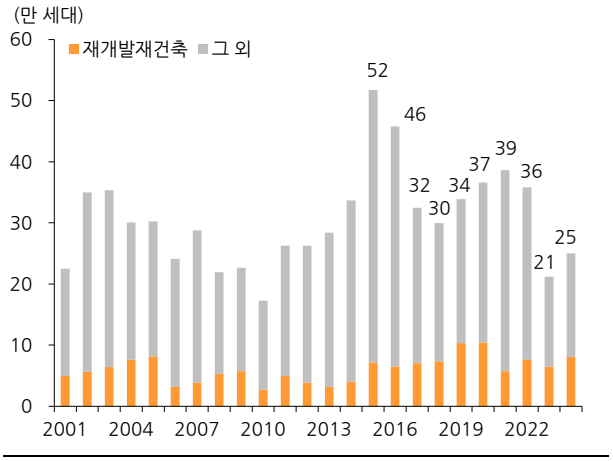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택 분양 지표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7.9%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물량 증가가 더 컸으며,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의 비중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2024년 8.1만 세대로 2000~2023년 장기 평균인 6만 세대를 넘어섰고, 비중도 32%대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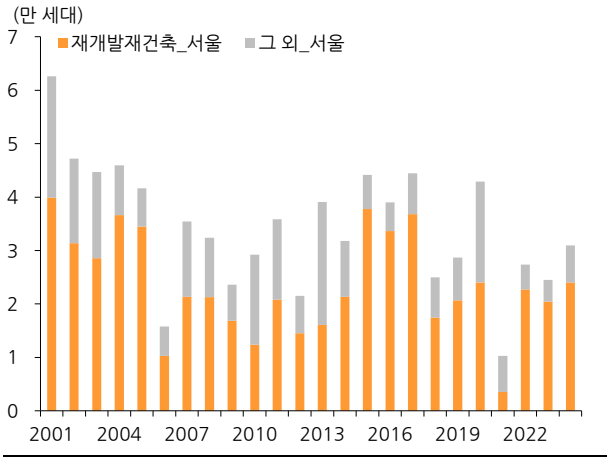
한편, 11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690세대 감소한 65146세대를 기록했다. 다섯 달 연속 감소다. 수도권은 9~11월 미분양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7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6월 말 5.9만 세대에서 11월 말 5.1만 세대를 기록 중이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 지역도 '23년 2월 1.4만 세대(정점)에서 11월 말 8200세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11월 준공 후 미분양은 18644세대로 전월대비 337세대 늘어남에 따라 16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그림11]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24 년 25 만 세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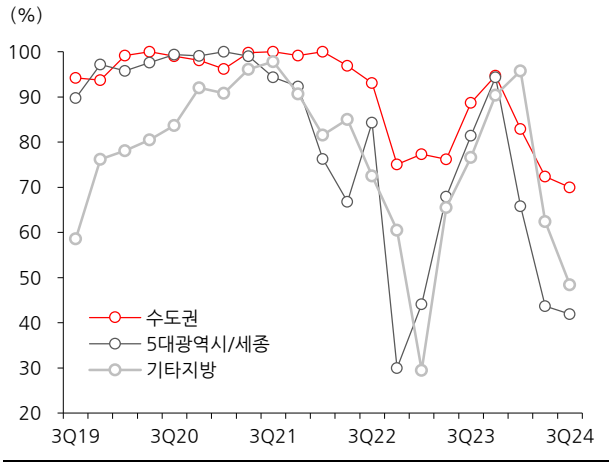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서울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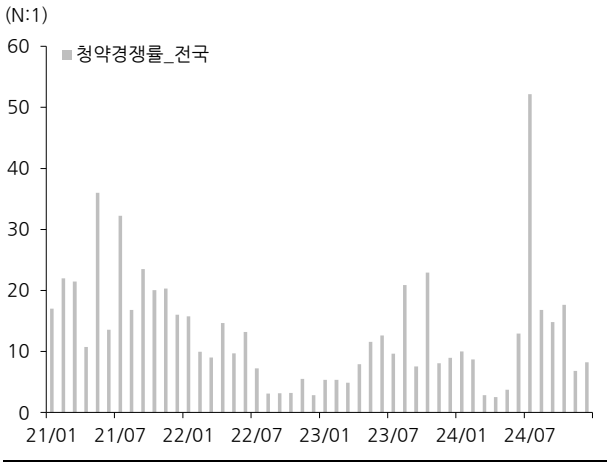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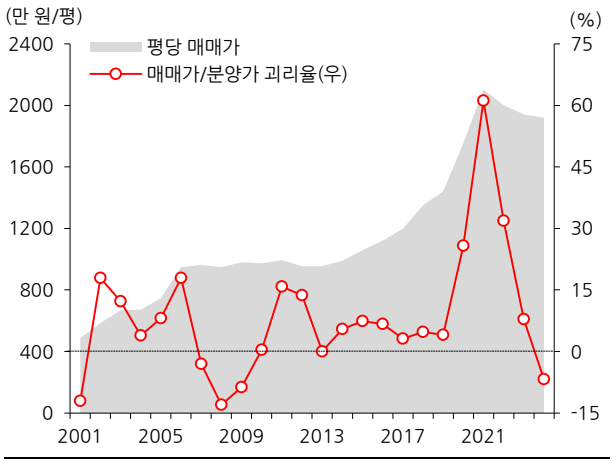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전국 청약경쟁률 추이(1~2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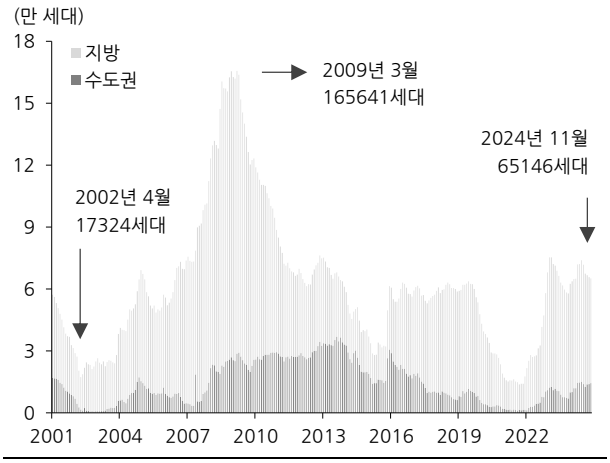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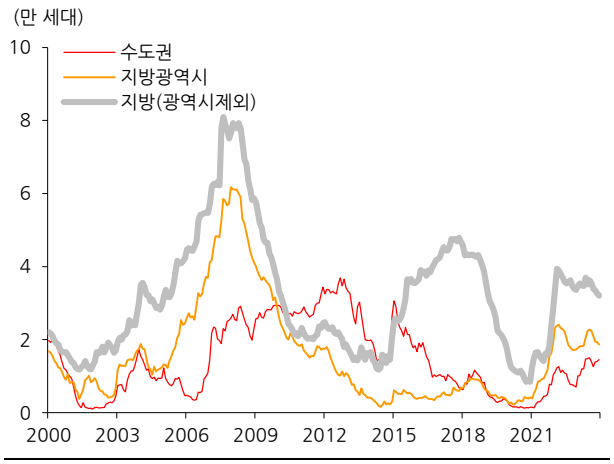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전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전월비 690 세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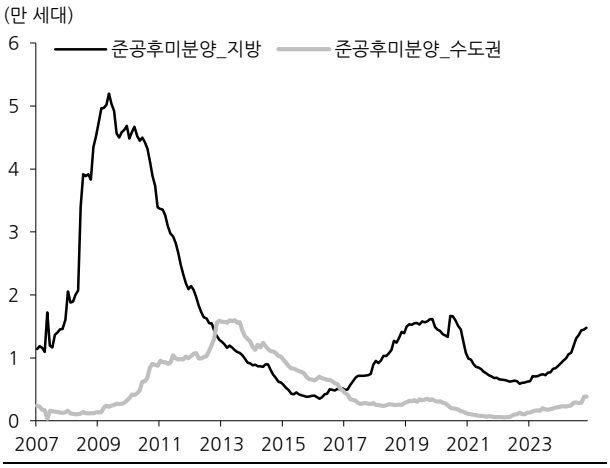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추이: 지방 5 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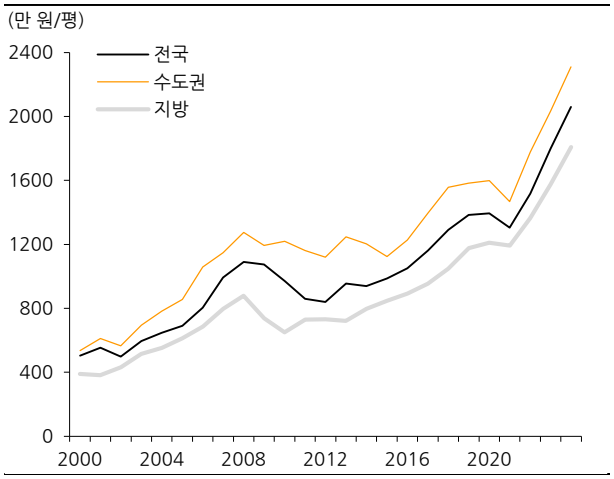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전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전월비 337 세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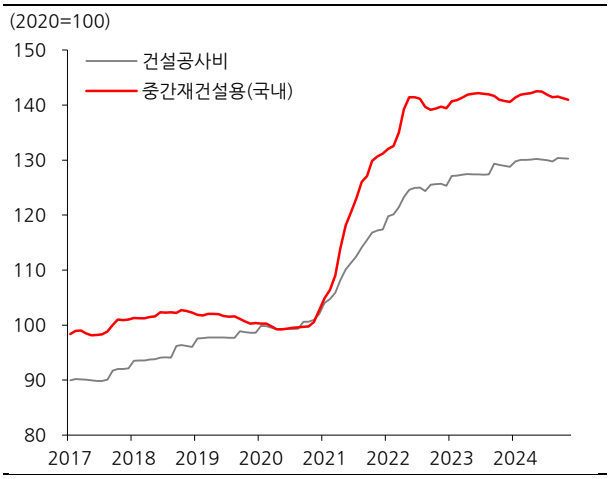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건설공사비 및 건설용 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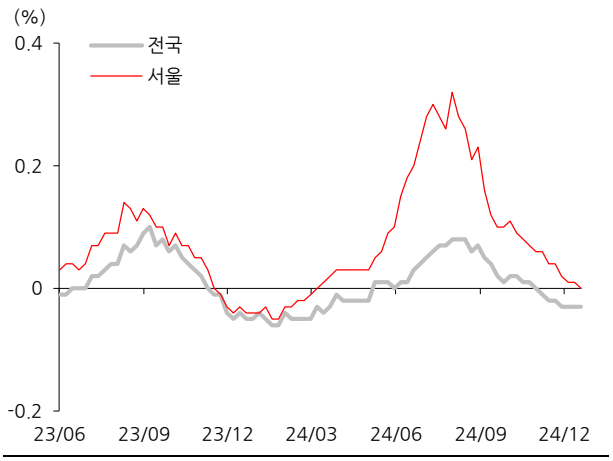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주택 거래 지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5월 중순 상승 구간에 진입했으나 가계대출 관리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돼 11월 중순에는 하락 전환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시장 위축과 함께 보합권에 들어서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작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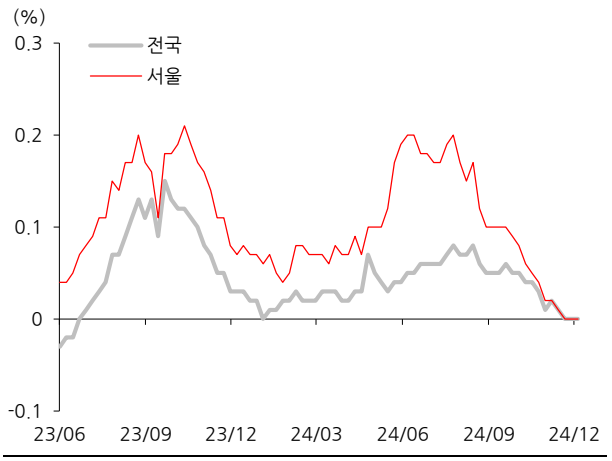
한편,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및 그 외 주택이 각각 YoY +10.9%, +1.0%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377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늘었으나, 월별로는 7월 951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4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그림21]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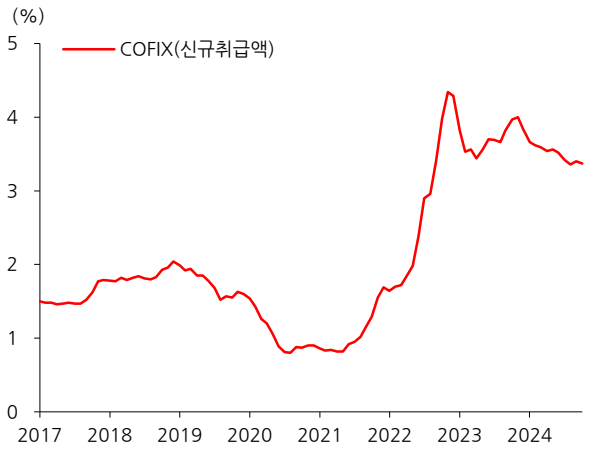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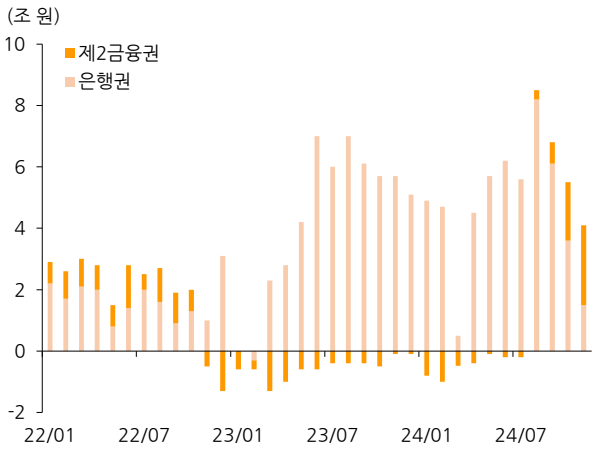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COFIX 금리 추이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주택담보대출 MoM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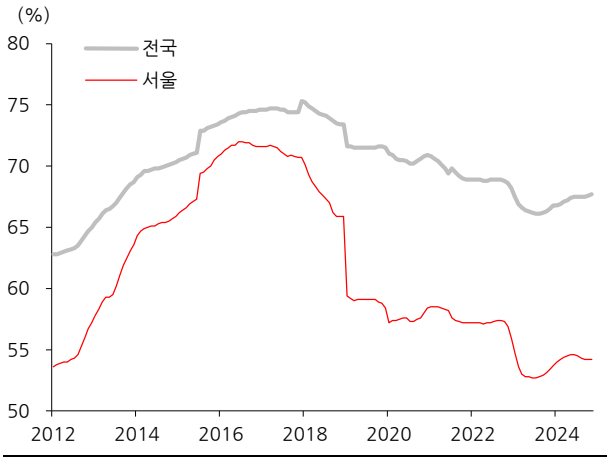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2025 년 27 만 세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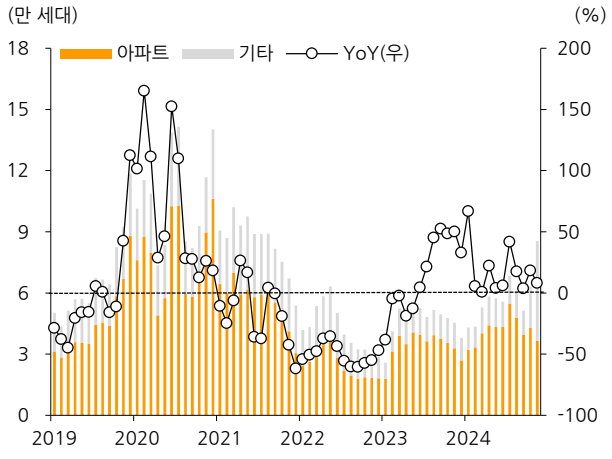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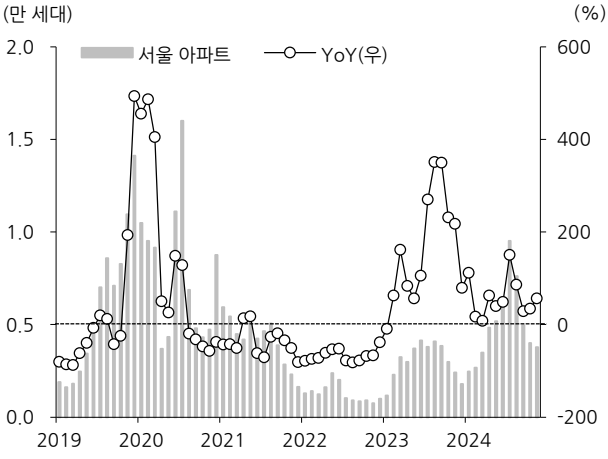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주택 매매거래량: 11 월 YoY +8.1% 기록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주택 매매거래량 - 서울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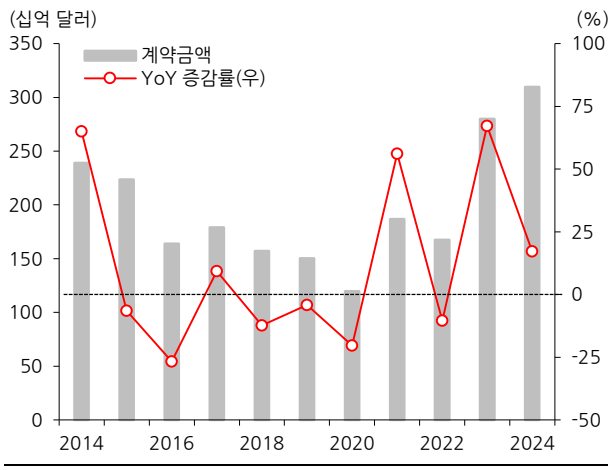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건설지표

(1) 중동 발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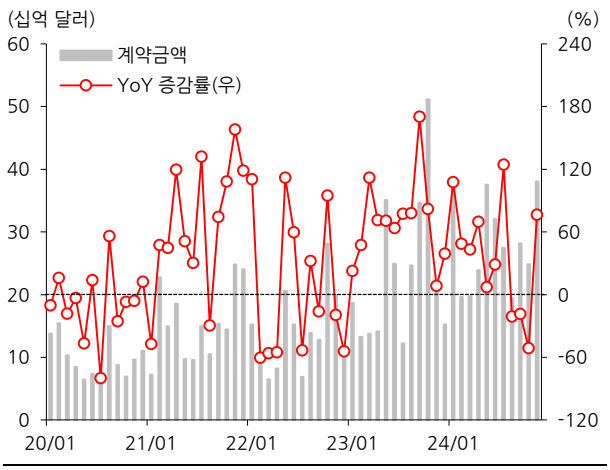
2024년 11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38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11월 누계로는 YoY +17%를 기록 중이다. 11월 계약금액 중 공종별로는 Power 프로젝트가 6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63%, UAE 13%, 카타르 9% 순이었다. 이 중 국내 건설사 수주 프로젝트로는 사우디 HVDC 송전공사(현대건설, 1조 원), 카타르 에틸렌 저장시설(삼성E&A, 0.3조 원)이 있었다.

[그림29] MENA 지역 발주금액: '24 년 11 월 누계 YoY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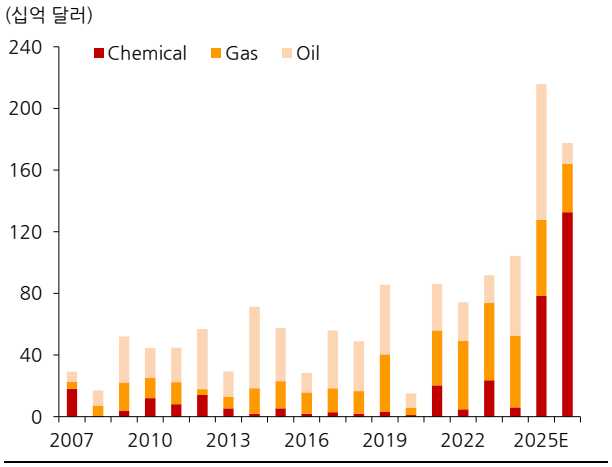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MENA 지역 발주금액 월별 추이: 11 월 YoY +76%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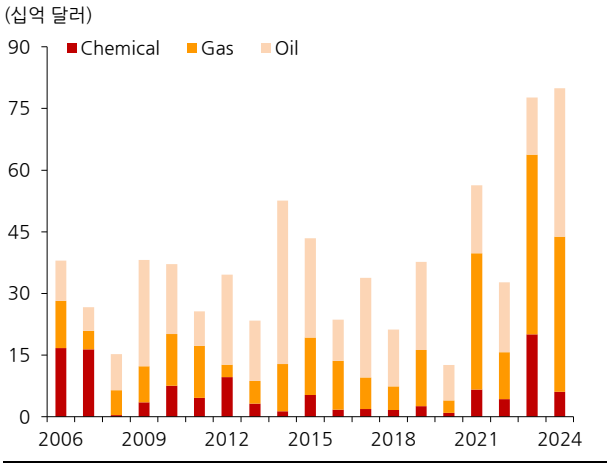
[그림31] MENA 주요 7 개국 예산액 추이(석유가스)



주: '24년 12월 말 기준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MENA 주요 7 개국 발주금액 추이(석유가스)



주: '24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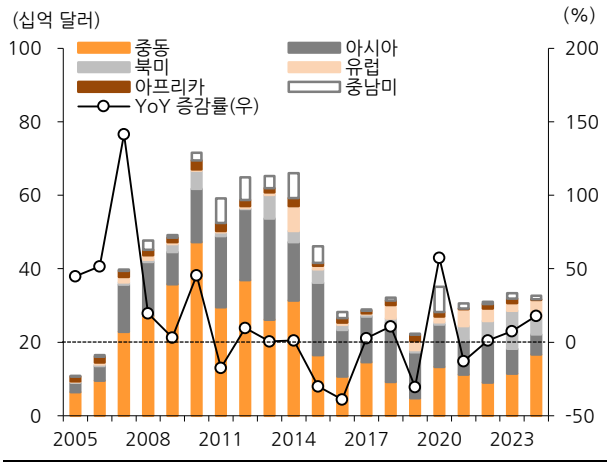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11월 말 기준 누적 해외수주는 3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를 기록 중이다. 업체별로는 삼성E&A 110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60억 달러, 삼성물산 48억 달러, GS 건설 28억 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1%,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69%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국가별로는 사우디 104억 달러, 카타르 48억 달러, 미국 34억 달러, 헝가리 27억 달러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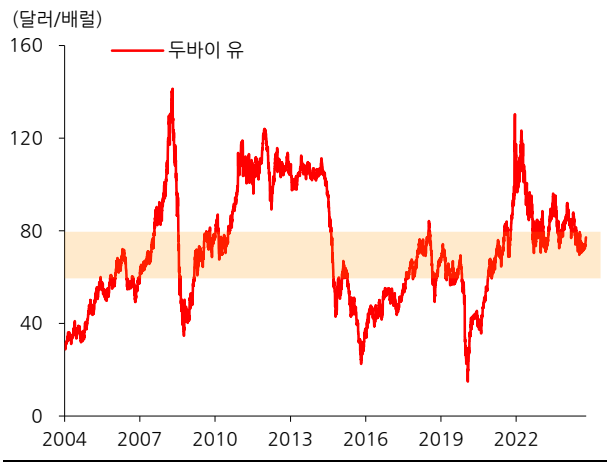
4분기 중에는 삼성E&A의 말레이시아 SAF(약 10억 달러), 카타르 에틸렌 저장시설(0.3조 원)과 현대건설의 사우디 HVDC 송전공사(1조 원) 수주 소식이 있었다. 대우건설의 리비아 하수처리(0.9조 원),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1.8조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낙찰자 선정, 금액 미정), DL이앤씨의 중앙아시아 화공(1.7조 원) 등 기존 수주 파이프라인은 2025년으로 이연됐다.

[그림33]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24 년 11 월 누계 YoY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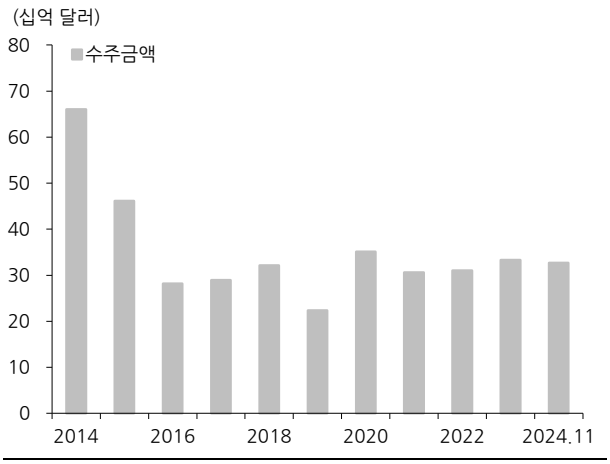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두바이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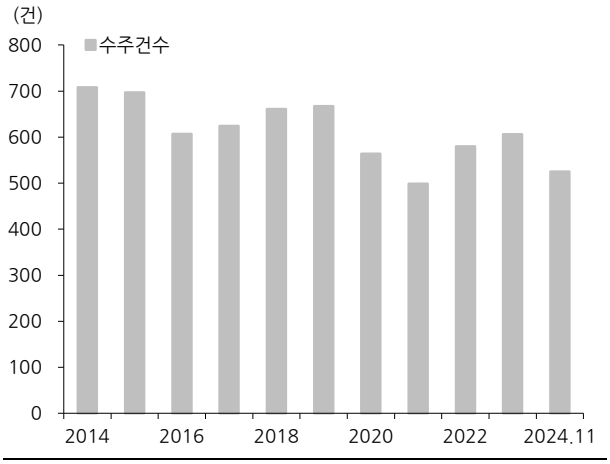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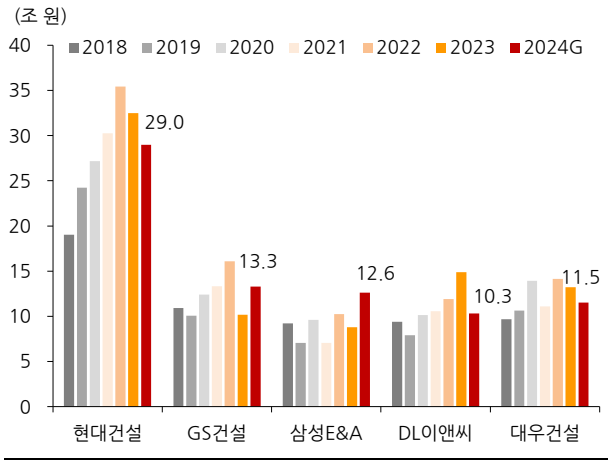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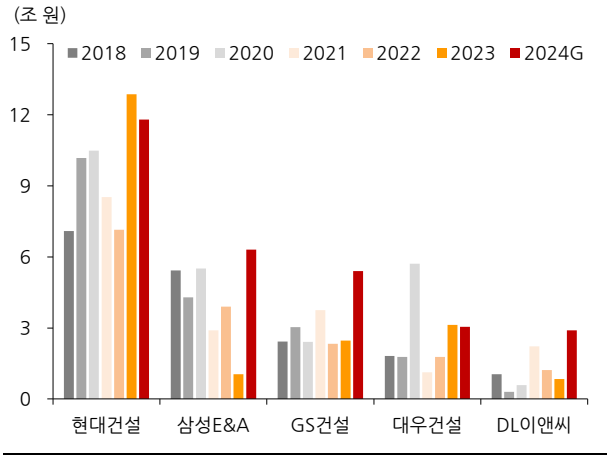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주요 건설사 총 신규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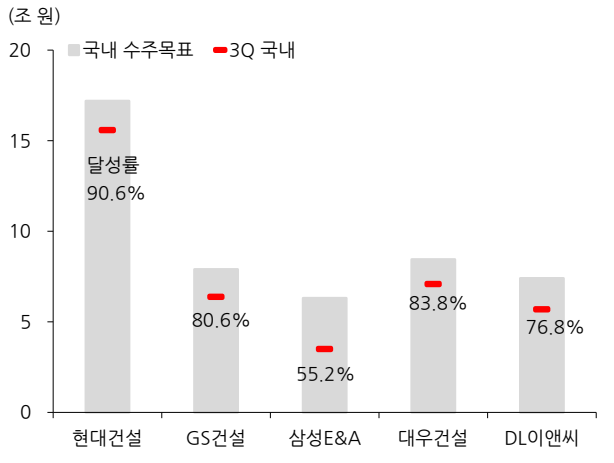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주요 건설사 해외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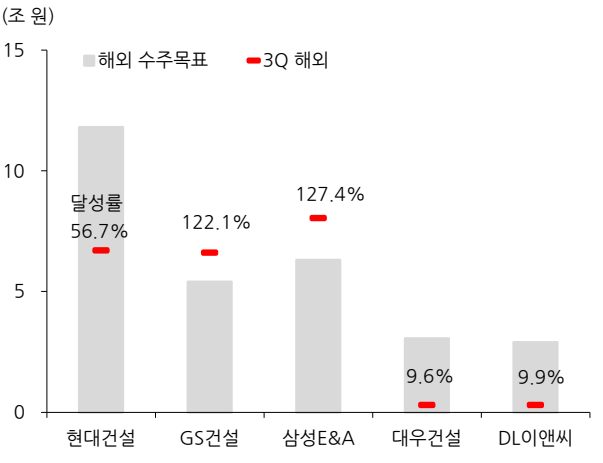
주: 삼성E&A 화공 부문 /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주요 건설사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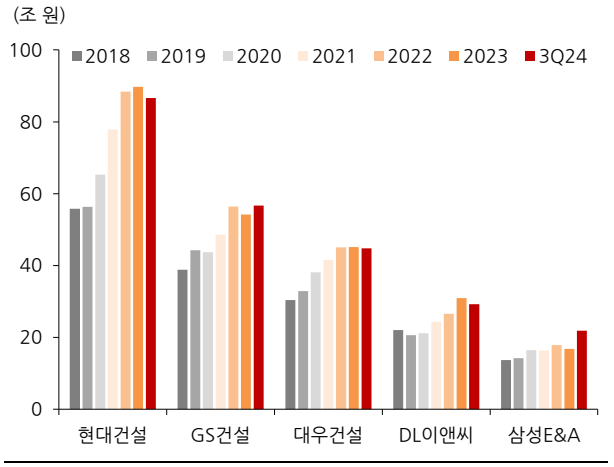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삼성E&A 수주 목표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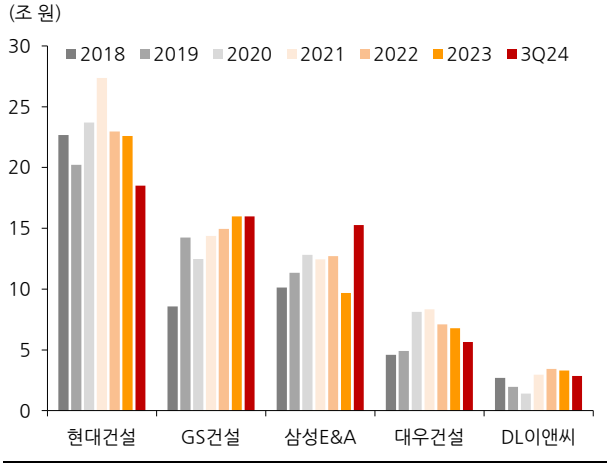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삼성E&A 수주 목표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주요 건설사 전체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KOSPI 건설업 '24년 주가수익률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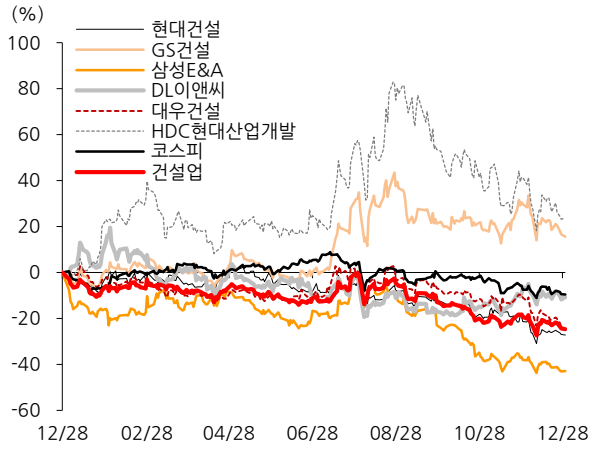
2024년 건설업 연간 주가 수익률은 -24.6%로 KOSPI의 -9.6%를 15.0%p 언더퍼폼했다. 건설업과 KOSPI의 주가 괴리는 7/11 -21.2%p에서 8/12 -3.6%p까지 줄었다가 10월 말 19.0%p까지 확대된 이후 다시 소폭 줄었다. 종목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YTD +23.6%, +15.5%로 KOSPI 대비 양호했던 반면, 삼성E&A는 -42.9%로 대형 건설사 중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다. 12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은 KOSPI 대비 모두 부진했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대출 규제 지속, 경기 둔화 우려, 정책 부재 등으로 매매가 하락, 거래량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감안 시 중장기 관점에서의 주택시장 회복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부정적/긍정적 변수의 혼재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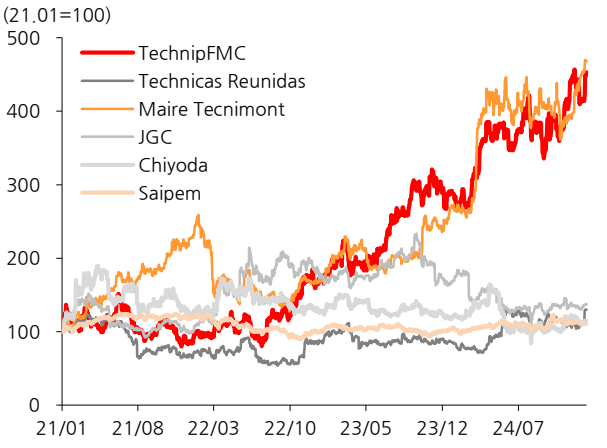
다만, 부동산 매매시장의 급격한 위축만 아니라면 2025년은 주택사업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실적 개선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주택주로의 관심 지속을 추천한다.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새롭게 제시하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그림43]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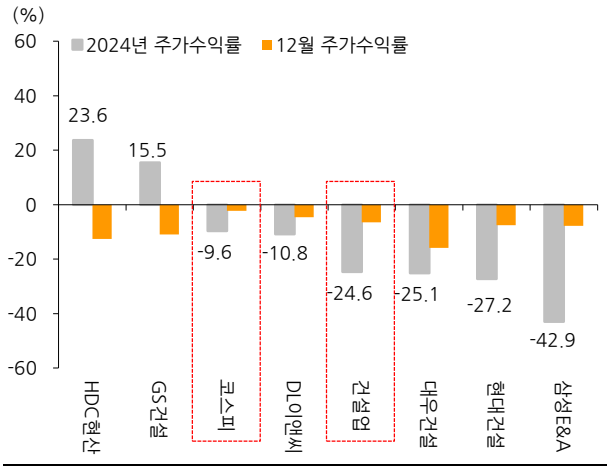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해외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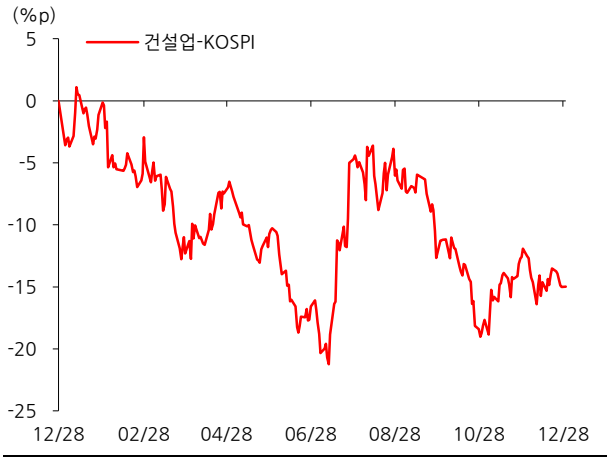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주요 건설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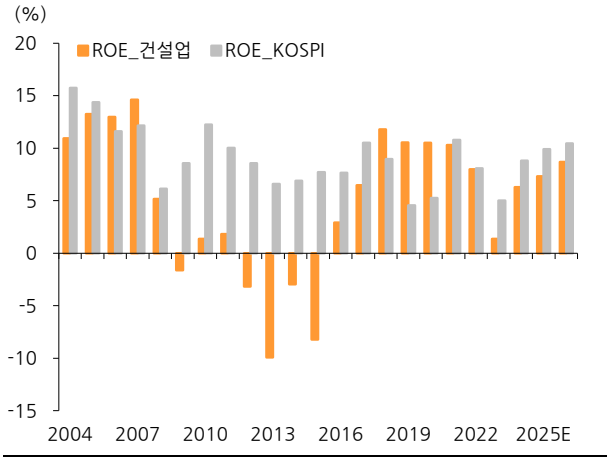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건설업과 코스피와의 주가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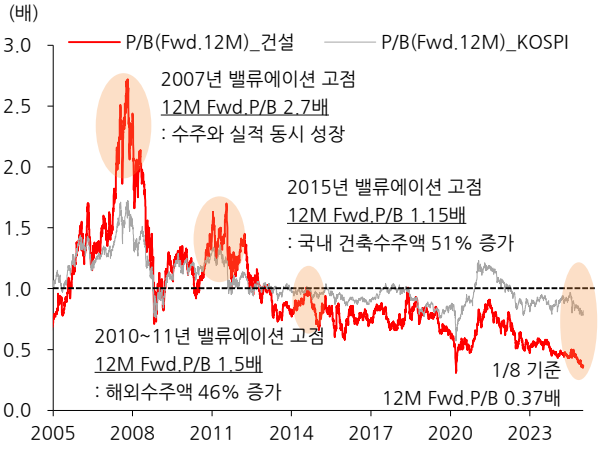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KOSPI와 건설업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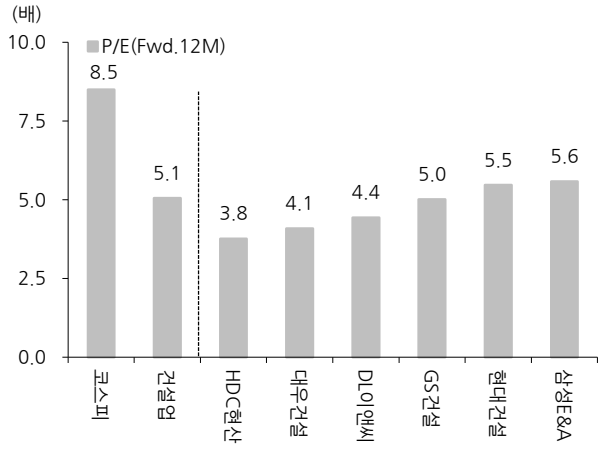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KOSPI 건설업 밸류에이션 추이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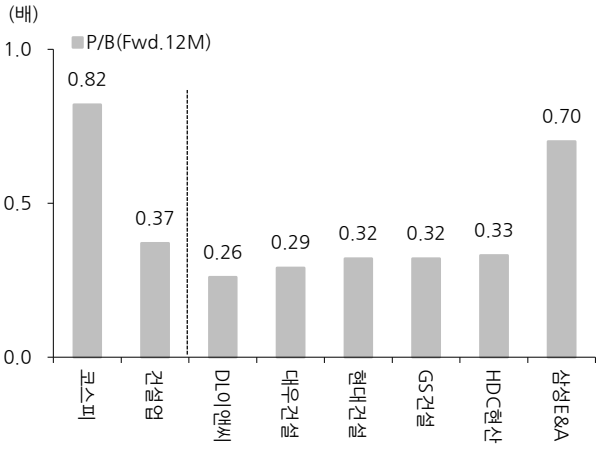
[그림49]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E



주: 1월 8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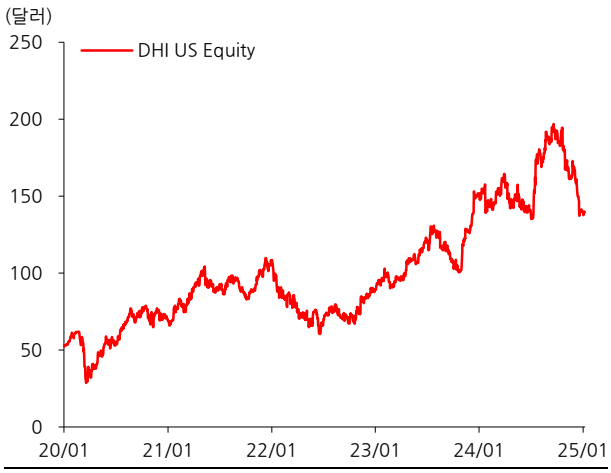


주: 1월 8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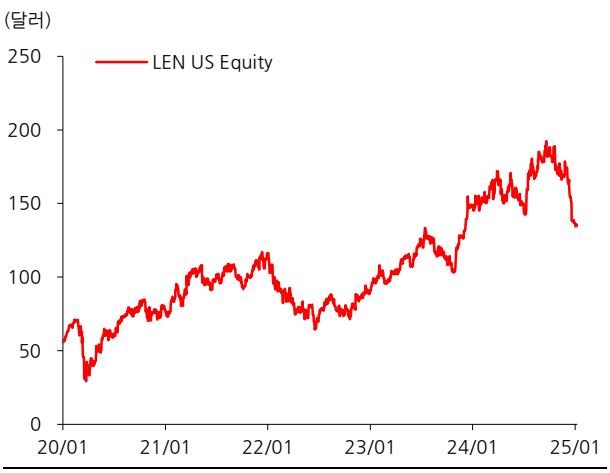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그림51] 미국 DR Horton (NYSE: DHI)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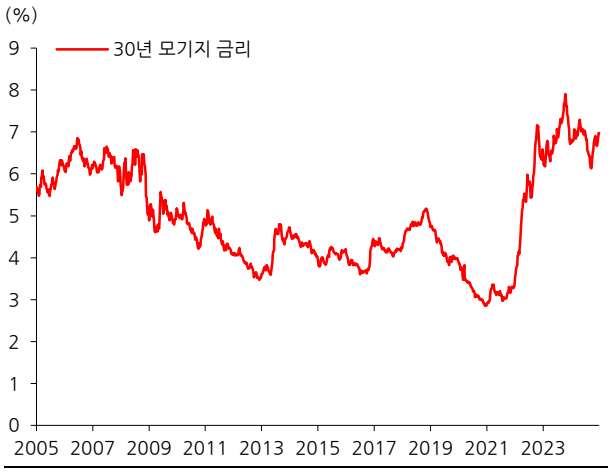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미국 Lennar (NYSE: LEN)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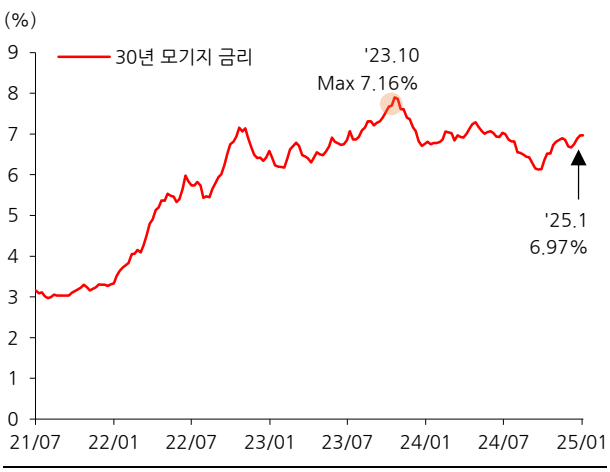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미국 30 년 모기지 금리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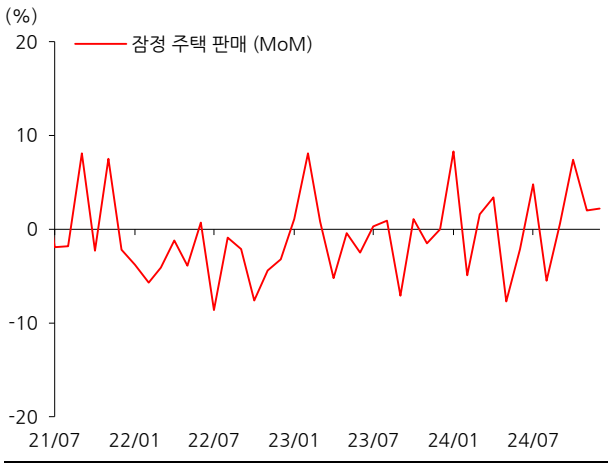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미국 30 년 모기지 금리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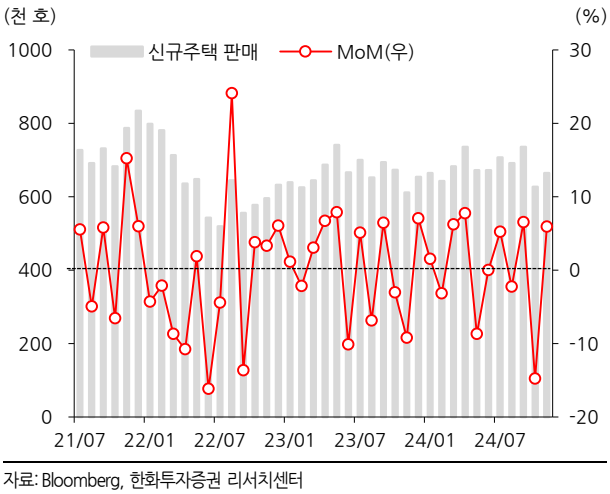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미국 잠정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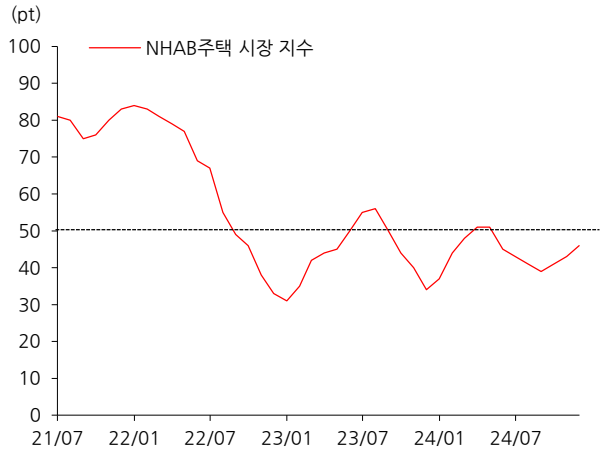
자료: NA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미국 신규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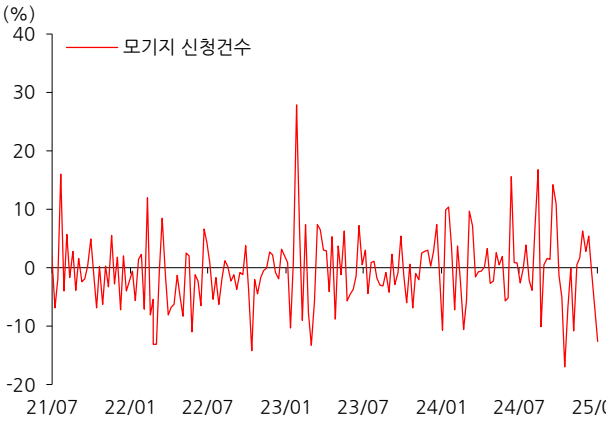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미국 NHAB 주택 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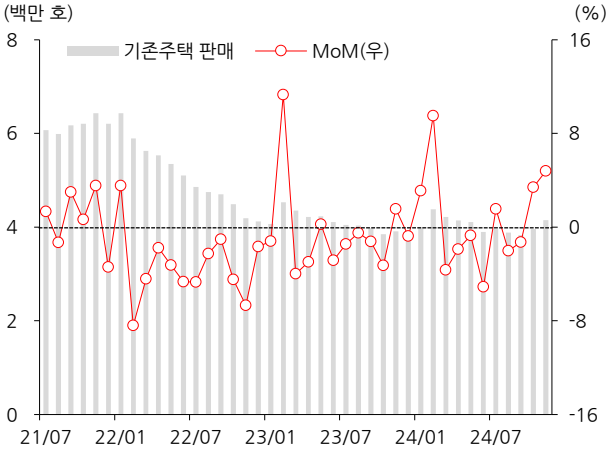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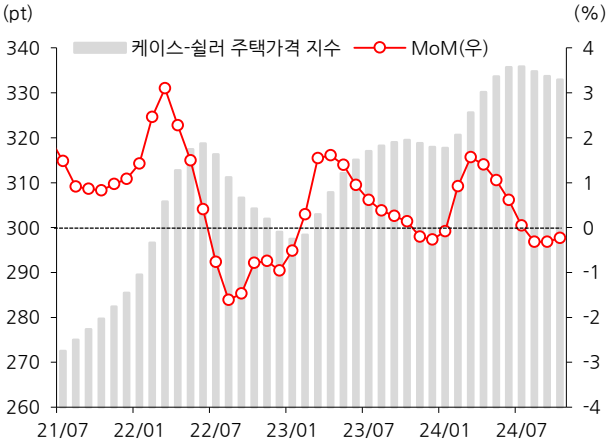
주: 전주대비 증감률 / 자료: MB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미국 기존주택 판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미국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 년 1 월 9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유림, 이다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2.0%	8.0%	0.0%	100.0%